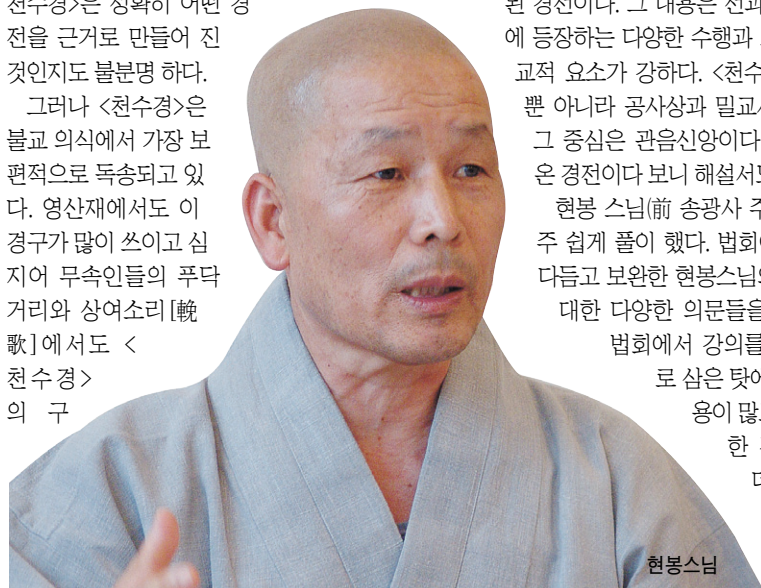


공과 연기로 읽는 천수경 '깊은 맛' 나네

현봉스님 천수경 강의 '너는 또다른 나'... 생활 수행의 길 전해

〈천수경〉 한 번 독송하지 않은 불자가 있을까? 법회에서 〈반야심경〉과 함께 필수적으로 봉독하는 〈천수경〉. 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천수경〉을 두고 의문을 갖는다. 다른 경전은 다 '여시아문'으로 시작 하는데 천수경은 그렇지 않다. 바로 '정구업진언'으로 시작된다. 경전을 이루는 여섯 가지 기본 요소(6성취)를 갖추지 않았는데도 〈천수경〉을 경전으로 봐야 하는가? 대장경 목록에조차 없는 〈천수경〉은 정확히 어떤 경전을 근거로 만들어 진 것인지도 불분명 하다.

그러나 〈천수경〉은 불교 의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독송되고 있다. 영산재에서도 이 경구가 많이 쓰이고 심지어 무속인들의 푸닥거리와 상여소리[輓歌]에서도 〈천수경〉의 구



현봉스님

절들이 암송된다. 주문과 계송이 섞여 있는 이 〈천수경〉의 저본은 서기 7세기경 인도에서 당나라로 건너갔던 가법달마가 번역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독송하는 〈천수경〉은 통일신라 이후 다소 내용적 변화를 보여 오다가 1969년에 형태를 완성 한 것이다. 그러니까 〈천수경〉은 편집된 경전이다. 그 내용은 선과 정토 회화 등 불교사에 등장하는 다양한 수행과 교리를 포괄하는 통틀 교적 요소가 강하다. 〈천수경〉안에는 화엄 정토 뿐 아니라 공상상과 밀교사상까지 담겨 있지만 그 중심은 관음신앙이다. 대중적 사랑을 받은 경전이다 보니 해설서도 10여종이 나왔다.

현봉 스님(前 송광사 주지)은 〈천수경〉을 아주 쉽게 풀이 했다. 법회에서 강의한 내용들을 다듬고 보완한 현봉스님의 해설은 〈천수경〉에 대한 다양한 의문들을 명쾌하게 풀어준다. 법회에서 강의를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삼은 맛에 다른 경전 구절의 인용이 많고 다양한 예화를 가미한 것이 책 읽는 재미를 더한다.

주문에 해당하는 글들은 해석 하지 않은 것이 그간

의 관례처럼 인식되어 왔지만 현봉 스님은 '신묘장구대다라니'를 자세하게 풀이하고 그 안팎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의 안목으로 〈천수경〉을 풀이 한 점이 경전을 이해하는 새로운 맛으로 다가온다. 경전에 들어 있는 상당수의 계송들이 선의 '한 경지'에 있음을 선사의 안목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연기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경전의 의미를 새기고 있는데, 책의 제목 '너는 또 다른 나' 역시 이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현봉 스님은 '무애대비심'을 이렇게 해설한다.

"너니 나니 옳으니 그르니 하는 분별의 조각이 끼어들면 무애의 대비심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건지는 '나'가 있고 건져야 할 '너'가 있으면 무애가 아닙니다. 너는 바로 나의 다른 모습이며 너는 또 다른 나일뿐이니, 다른 모든 것이 같은 하나이고 한 몸인 동체대비심이 무애대비심입니다."

불광출판사 | 1만원 5000원



임연태 기자

부처님의 육성으로 '금강경' 이해

대승초기 경전인 <금강경>을 이해하기 위해 부처님 육성이 묻어나는 초기 경전인 <아함경>을 본다는 발상이 신선하다. 저자는 <금강경>의 내용과 용어가 초기경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 천착해 <아함경>의 내용을 비취 본 것이다. <금강경>에 나오는 용어를 <아함경>의 설명으로 이해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금강경>에 나오는 '수다원'의 개념을 <아함경> '사문법사문과경'의 내용으로 설하는 것이다. 아함부의 경전들이 부처님의 육성이란 점에서 보면 <금강경>을 부처님의 견해로 해석한 것이란 뜻이다.

책은 서문 부분에서 <아함경>과 <금강경>을 서지적으로 검토하고 부파불교의 성립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이어 <금강경> 32본 전체를 용어 해설과 의미풀이 등으로 강설한다.



아함경과 함께 보는 금강경
이성규 편저
선언 펴냄
1만5000원

원효를 만나면 원효가 된다



나는 오늘도 길을 간다
고영섭 지음
한길사 펴냄
1만4000원

'원효 한국사상의 새벽'이라는 부제가 설명하듯 원효의 가치를 현대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했다. 저자는 머리말에서 '왜 다시 원효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스스로 답한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無分別, 내

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남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無執着), 내가 지니지 못한 것을 남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無所有) 지성인이 그림기 때문"이라고.

또 저자는 우리에게 원효란 무엇인가를 묻는다. 저자는 원효의 '보살적인 삶'에 방점을 찍는다. 그리고 원효를 "어떠한 경계에도 치우침이 없었지만 그의 견해가 없지 않았으며 타인의 잘못을 비판하면서도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성인이었다. 통찰력(禪)과 문장력(敎)의 화합을 통해 시대의상장 법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이론에 밝았으면서도 실천에 소홀하지 않았다"고 상기 시키고 있다.

수행 · 교단 중흥에 헌신 '큰 족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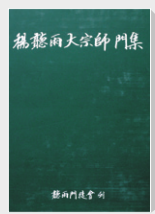


청우대종사

법통을 이어준 선사(先師)들, 영호 문도회와 사형제들 도반들에 대한 글도 각종 자료 사진들과 함께 수록됐다. 서문은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격려하는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이 각각 썼다.

청우 대종사는 평안남도 성천군에서 출생(1912년)해 12세에 전북 순창 구암사에서 영호 대종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건봉사 불교전문강원을 거쳐 안변 석왕사 서울 개운사 강원 등에서 이력을 마쳤다. 보현사 유점사 백양사 등에서 안거 정진 했으며 '불교정화'에 앞장서기도 했다. 청우 대종사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재무부장을 역임하며 이사원웅의 모범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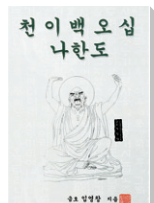
수행과 종단의 '정화운동' 그리고 조계사 대종사 등 큰절의 불사를 주도했던 청우대종사의 문집이 나왔다. 청우문도회(대표 재덕)가 묶은 문집은 청우 대종사의 연보와 생애, 비문, 행장을 통해 본 사상, 법어, 편지글 등으로 편집됐다. 대덕 명사들이 기억하는 청우대종사에 대한 글과 문도들이 스승을 기리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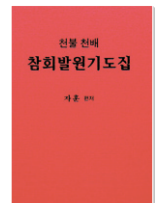
천이백오십 나한도
임영창 그림
성불사 펴냄
1심8만원

나한님들 다 모이셨네! 천배 올리는 정성으로

경전의 앞 대목에서 '천이백오십인'이라는 숫자를 자주 보게 된다. 부처님의 상수제자 즉 부처님을 늘 따라 다니는 제자들이다. 그들은 모두 수행이 수승하여 아라한을 이룬 분들이었다. 이를 '1250 아라한'이라고 한다. 16나한이나 500나한 등에 비해 최대로 큰 개념의 나한군인 것이다. 목조각가 임영창씨가 1250 나한의 형상을 그림으로 현시시켰다. 목조각을 위한 초본이자 하나의 회화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임씨는 '불교미술은 철저하게 불교교리에 입각해야 한다는 소신이 이 작업을 하게 했다'고 밝히고 있다.



천불천배참회발원기도집
자훈 스님 편저
정우서적 펴냄
2만원



행어, 깨달음을 얻으려거든
김성갑 지음
관음출판사 펴냄
1만2000원

몸 · 마음 조화 만들기

'내 안의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고 부처의 씨앗이라면? 저자는 먼저 이러한 물음을 던지고 '내 안의 나'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한다. 불성이 다. 그러나 불성은 아무렇게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활용하는 것도 아니다. 작복을 바탕으로 한 정진을 통해 드러낼 수 있다. 저자는 '석가와 예수가 살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심정으로 각종 수행법들의 가치를 조명한다. 특정 사상과 종교를 초월해 인간으로서 뛰어날 할 근원적인 수행의 길을 안내한다.

www.hyunbul.com으로 오세요.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2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	법륜	정토
3	쉬고 또 쉬고	무어	새로운 사람들
4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5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6	부처를 따라	한각	김영사
7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진	마음의 숲
8	행복한 출근길	법륜	정토
9	승가의 변	동주	홍원사
10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anmaum.org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송·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금강경(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펴낸 천수경(한글/영어)